

담양·합평·영광·장성 대전표

행정달인 vs 경제전문가 한판 승부

담양·합평·영광·장성은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과 국민의당 강형욱

이 선거구에선 이 의원의 재선 여부가 관심사인데, 국민의당이 이곳에서 총력전을 펼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측간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예측된다.

전남지역 다른 선거구와 달리 이 선거구의 경우 더민주가 다소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지역구에서 우위를 점한다면 전남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담양 출신인 이 의원은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여수·목포 부시장, 전남도청 기획실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지난 2014년 7·30 재보궐선거에서 81.3%라는 전국 최고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후 이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와 윤리심판원 부위원장, 국회 예결특위 위원 등을 지내면서 당내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이 의원의 최대 장점은 행정과 정치로



Table with 2 columns: Party (더불어민주당), Name (이개호), Age (56), Position (현 국회의원, 전남도행정부지사)

담양출신 이개호-영광 강형욱

더민주-국민의당 대결구도

합평·장성 표심이 변수로

두루 경험했다는 점이다.

특히 원칙과 정도를 지키면서도 합리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방의 미래, 농업의 희망 찾기'에 전력을 쏟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의원의 맞상대인 영광 출신 강 후보는 재무부 행정사무관과 아세아개발은행 자금부,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기획단, 재정경제부 관세협력과장,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재경부 재정정책심의관, 한국투자공사 감사 등을 역임했다.

주변에선 강 후보에 대해 경제정책 전문가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강 후보의 최대 장점도 경제 부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예산을 챙기는데 다소 유리하다는 점이다.

그는 이번 총선 출마의 변에서 "30년 경제부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엔 헌신하겠다는 뜻을 갖고 이번 총선에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선거구 역시 변수는 있다. 더민주에 대한 지역민의 여론이 예전같지 않은 분위기에서 국민의당이 어떤 프레임에 갖고 선거운동에 임하느냐는 점이다. 특히 양측 후보의 출신지역이 각기 다른 점도 지켜볼 대목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동구청장 재선거 대전표

더민주-국민의당-무소속 대결

광주시 동구청장 재선거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무소속' 후보간 3자 대결구도가 형성돼 있다.

예초 더민주-국민의당 후보간 일대일 대결이 전망됐으나 국민의당의 한 후보가 탈당 뒤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재선거 판세는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국민의당 후보의 탈당이 과연 자신을 포함한 어느 후보에게 득(得)이 되고 실(失)이 될 것인지 여부는 이 선거구의 최대 관전 포인트다.

더민주 홍진태 전 광주시 투자고용국장은 지난 10일 당내 경선에서 잇백 광주시 의원을 누르고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강진태 출신인 홍 전 국장은 시 내무국 계장과 관광과장·문화정책실장·서구 부구청장 등을 역임했다. 정통 공무원 출신인 그는 행정 경험이 풍부하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또, 강력한 추진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조직을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하면서 구청장의 시화로 빛이날 구청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의당 김성환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은 보성출신이다. 전남도청과 국무총리실 의전비서관·청와대 경제수석



Table with 4 columns: Party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무소속, 무소속), Name (홍진태, 김성환, 문팔감, 양혜형), Age (58, 54, 61, 53), Position (현 광주시 문화정책실장, 현 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 현 화순군의원, 현 광주시 동구청장)

무소속 여론조사 통해 단일화

국회의원과 러닝메이트 관심

실 선임행정관 등을 거치며 26년을 공직에서 근무한 정통 행정관료다. 그의 최대 강점은 인맥이 넓다는 점으로, 주변에선 행정관료 출신답게 공백상태인 구청장을 잘 이끌어 갈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는 구청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개설과 지방소비세·지방교부세 상향 지원 등 재정 건실화를 통한 동구 재도약의 원인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무소속 양혜형·문팔감 후보도 출사표를 던진 뒤 지역 표밭을 다지고 있다. 양 후보는 최근 국민의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이들 후보는 지난 21일 단일화에 합의한 뒤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선거구 역시 변수는 있다. 같은 날 치러지는 국회의원-구청장 후보간 러닝메이트 조합 여부다. 러닝메이트 조합 여부에 따라 당락이 좌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각 당 경선에서 패한 후보들이 세를 규합한 뒤 어느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이종행기자 golee@

광주 누문동 '뉴스테이사업' 활기 찾나

정비사업조합, 우선협상대상자 '스트래튼 알이' 재지정

비수도권 최초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인 광주 누문동 뉴스테이 사업이 새 파트너를 찾아 활기를 찾는지 주목된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누문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최근 스트래튼 알이(STRATIN Real Estate)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재지정했다. 이 회사는 인천 십정2구역 등에도 투자자로 참여한 뉴스테이 전문투자사다.

조합은 지난해 10월 KB부동산신탁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토지가격 협상을 했지만 KB 측이 3.3㎡당 730만~740만원인 감평가에 못 미치는 709만원을 제시하면서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과 스트래튼 알이는 750만원 가량

으로 잠정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시는 전했다. 이에 따라 조합, 투자사, 시공사(현대건설) 등 주체를 확정해 사업은 속도를 낼 수 있게됐다. 조합 등은 토지매매 협상을 완료하고 정비계획 변경, 건축·디자인 심의 등 절차를 거칠 방침이다. 광주시는 오는 28일 테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추진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시는 용적률을 현재 372%에서 460% 이상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어서 누문구역 뉴스테이 공급물량은 3천여 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광주 북구 누문동 일대 11만1430㎡는 2006년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승인을 받으며 정비사업이 시작됐다. 그러나 대형 평형 위주로 가구가 구성되는 등

미분양 위험 탓에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해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국토부와 광주시는 누문구역 사업 재개를 위해 협의하던 중 이 지역이 뉴스테이 공급에 적합하다고 판단, 지난해 10월 업무협약을 했다. 당시 윤장현 시장과 KB부동산신탁(주) 정순일 대표, 누문구역도시환경정비조합 김형완 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지 11만1430㎡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인 KB부동산신탁은 전체 공급물량 3000여 가구 중 조합원 분을 뺀 2000여가구를 사들이고, 시는 사업지구정비계획 변경, 사업시행 인가, 건축계획 변경 허가 등 행정 지원에 적극 나서며 동시에 국토부와 협의해 주택도시기금도 지원한다는 게 주요 골자였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부적격자 공천철폐하라"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회원들이 23일 오후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20대 총선에서 공천 부적격자들에 대한 여야의 공천철폐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거주 외국인 유학생 3명 중 2명 중국인

89개국 4322명 유학

김용집 시의원 분석

광주에 있는 대학(원)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3명 중 2명가량이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광주시의회 김용집 의원이 광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학생 현황에 따라

며 지난 10일 현재 광주 12개 대학(원)에서 유학생인 89개국 학생 4322명 가운데 66.5%인 2873명이 중국인이었다.

베트남(478명), 몽골(131명), 인도(83명), 파키스탄(79명)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호남대 연구소의 조사를 인용해 2012~2015년 중국 유학생들이 580여 명을 지역에서 지출했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등록금, 자료구입비, 숙소·식사 비용 등을 추정할 수지로 100% 신뢰할 수는 없더라도 유학생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적지 않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중국 유학생들이 지출하는 분야는 교육, 도·소매, 음식점·숙박 서비스 등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생산유발 289억여원, 부가가치 151억여원, 취업유발 411명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동서해저터널(여수~남해) 조기 착공을"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 건의문 상정

23일 전남도의회 주관으로 열린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은 여수~남해간 도로(동서해저터널) 조기 착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상정해 의결했다.

명현관 전남도의회 의장은 건의문을 통해 "동서해저터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

약사업으로 경제 타당성보다 동서화합의 상징성을 감안해 추진해야 한다"며 "동서 통합해 도로망 구축과 인적·물적 교류 확대, 섬 관광벨트를 연계한 해양관광개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 의원은 이어 "여수~남해 간 도로 건설 사업은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해 조기 착수해야 한다"면서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본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계 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는 대전시의회에서 제출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평가제도개선 촉구 건의'와 울산시의회가 제출한 '동물보호·복지 관련 정부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 건의', 경기도의회가 제출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촉구 결의문 채택' 등을 포함한 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관련 서류를 정부부처에 보내기로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라식 vs 라섹' eye surgery. Includes text about laser eye surgery, contact information (1566-9988), and a list of services.

Advertisement for '당뇨병-갑상선 건강강좌' (Diabetes-Thyroid Health Course) at Taeyoung 21 Hospital. Includes speaker names, dates, and location.